

## 행복한 금요 편지

# 사랑하는 우리 딸 혜진이에게

박근학<sup>1)</sup>

한선재단 행복포럼 고문

아직 땅거미가 거치지 않은 초여름 새벽 05시  
공기는 맑고 선선하며 기분이 아주 상쾌하구나!  
사랑하는 우리 딸은 아직 자고 있겠지.  
혜진아! 생일을 축하한다.


45년전 1971년 6월 3일은 부산 구덕산 산자락에 얹은 하얀 안개가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걷히고 초여름의 태양 열기가 타오르기 시작할 무렵, 오전11시경 보수동 조산원에서 사랑하는 우리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고성을 외치던 날이었다. 그때 아빠는 볼 일이 있어 엄마 곁을 잠깐 비운 사이에 네가 태어났다는 전갈을 받고 조산원으로 달려갔지.

처음 우리 딸을 보는 순간 아빠는 '내가 아빠되었구나'하고 반갑게 너를 쳐다보는 기쁨은 잠시이고, 우선 내가 우리 딸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앞섰단다. 그때만 해도 나라 경제가 어려워 월급쟁이들의 가정은 그리 넉넉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네가 태어나던 그날 그 순간의 용기, 희망 그리고 감동으로 지난 33년 3개월 3일 동안을 오로지 방송인이란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앞만 보고 달려왔단다.

다행이 너와, 두 남동생 3남매가 건강하게 성장해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너는 우리 집안의 맏이로서 어릴 때부터 신사임당의 형상을 보듯이 흔들림 없이 바르게 자라 우리 가정의 빛이 되었고, 그러기에 두 남동생들이 누나를 꽤 따랐었지. 지금도 폭풍처럼 자랄 때 모습이 눈에 선하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박근학 한선재단 행복포럼 고문님은 전 MBC 본사 상임감사와 포항 MBC 사장을 지내셨습니다.



오늘 너의 생일을 맞아 처음으로 지난날을 회상하며 딸에 대한 아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러니 말의 순서가 엉킨듯이 두서가 없구나. 그래서 편한 생각으로 몇 자 적으니 이해 바란다.

헤진아! 해마다 6월이면 너의 생일날을 생각했지만 네 나이 46살이 인줄이야 오늘에서 알았단다. 세월이 이렇게도 질풍노도 같이 흘러갔구나. '격세지감'이란 말은 이래 두고 하는 말이구나. 너무 무심했구나. 이제 아빠도 늙어가나 보다.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으로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시집을 가게 되었을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렁 시집보내던 그날, 예식장에서부터 눈물이 앞을 가렸고 집에 와서도 네 방을 떠나지 못하고 펄펄 울었단다. 그 좋은 날에 왜 그렇게도 서운한지....

아마 모든 아빠들의 마음이 다 같다 하더라도 아빠는 네가 태어나면서 25년간 애지중지 키워기 때문에 시집보내는 것이 서운했었나보다. 더욱이 나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고, 이 세상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부정(父情)이 남달랐나 보다. 아빠는 그 날의 결혼식을 회상하며 이것이 바로 여자로 태어난 것이 숙명이구나 생각하고 우리 딸이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주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헤진아!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태어나 二性이 서로 만나 자기 후세를 낳아 새로운 삶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이 人生事가 아니겠나.

헤진아! 이제 너에게 몇 마디 귀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늘 하던 말이 있었다. 여자는 시집가서 그 집안을 번창하게 해야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늘 명심하기를 바라며 이제 네가 그 집안의 만며느리로서 특히 퇴계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가문을 더욱 빛내도록 바란다. 더욱이 명가의 대통을 이을 아들 환이를 위해 7-8년 동안 뒷바라지한 결과로 원하던 서울대학교에 입학한지도 벌써 2년, 이제 의젓한 대학생의 학부형이 되었으니 아빠로서 우리 딸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단다.

헤진아! 생일을 축하한다는 첫 편지에 몇 자 적어보려 했는데, 지난 이야기들만 한듯 하구나.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이제는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하고 더욱 화목한 가정을 일구어 가도록 하여라. 참, 늦은 감은 있지만 네가 좋아하는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하기에 반가웠단다. 항상 행복한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줄인다.

2016년 6월 3일  
사랑하는 우리 딸 생일아침 새벽에 아빠가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